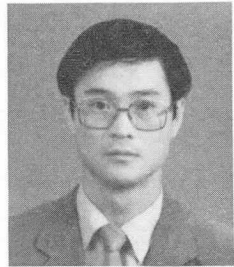


# 돼지콜레라 발생 현황과 백신접종의 중요성



권창희 박사  
(가축위생연구소 병독과)

## 머리말

양돈을 전업으로 하거나 또는 돼지를 사육하는 분들이 양돈에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질병을 열거하라면 제일 첫째로 손꼽을 수 있는 질병의 하나는 돼지콜레라의 발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근본 이유중의 하나는 이 전염병의 전파력이 매우 빠르며 또 감염시 질병의 폐사율도 매우 높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이유로 인하여 돼지콜레라는 가축방역상 제1종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예방접종이 강력히 권장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지면을 통하여 이 질병의 발생 현황과 이에대한 백신접종의 방법 및 중요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 1. 돼지콜레라의 발생 현황

농림수산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각도 보건소에서 보고된 돼지콜레라의 발생건수는 1990년 및

1991년에 걸쳐 모두 36건씩 72건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발생의 계절적 분포 역시 봄부터 겨울철까지 비교적 균등한 발생빈도를 나타내었다.

이와같은 통계는 과거 1970년에서 1980년대에 비하면 돼지콜레라의 발생이 비교적 감소되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정식으로 또는 진단상 집계되지 않은 예를 가정한다면, 아직도 지속적인 발생이 실제 농장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양상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돼지콜레라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하여 적절한 방역을 지속하지 않을 경우 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전염성질병으로서 간주되어야만 한다.

## 2. 돼지콜레라 예방약접종의 중요성

돼지콜레라는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돼지의 급성전염병이란 점에서 감염시 치료는 되지 않으며, 예방접종을 통한 사전 방역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돼지콜레라 예방백신의 정기적인 접종은 이 질병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상의 수단으로서 인식

“  
 돼지콜레라는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돼지의  
 급성전염병이란 점에서 감염시 치료는  
 되지 않으며, 예방접종을 통한 사전  
 방역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



되어야 한다.

또한 이 질병으로 추측되거나 의심이 가는 증상이 발생되었을 시에도 정확한 진단은 질병전파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인근지역 뿐만 아니라 해당 농장에서도 즉각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겠다.

### 3. 돼지콜레라에 있어서 면역의 중요성 및 예방접종 요령

실제 돼지콜레라에 대한 방어능력은 두가지 경우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예방접종, 즉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을 통한 돼지의 능동적 면역이다.

이와같은 면역은 접종후 1주일 이상이 경과하면서 형성되는데, 야외 바이러스가 면역형성시 감염되더라도 생존할 수 있으며 내과된 돼지는 더욱 튼튼한 저항성을 획득하게 된다.

둘째, 모돈이 돼지콜레라에 대한 면역이 돼 있을 시 포유자돈은 모체로부터 이행항체를 통해 일시적인 저항성을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형성된 모체로부터 받은 이행항체는 대략 2

주간격으로 반감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소실된다.

또한 모체로부터 이행된 항체가 높을시 (1,000 바이러스 방어가 또는 그 이상의 상태) 생후 4개월까지도 야외감염으로부터 방어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와같은 경우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면적이 저해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실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미국에서 조사한 경우 생후 30~35일 경까지는 모체이행항체가 대부분 소실되므로 예방접종시 능동면역의 형성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이행항체에 의한 면역형성이 방해를 입을 경우도 고려한다면 추후 50~60일령에 재차 접종함으로써 돼지콜레라에 대한 튼튼한 방어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모돈에 있어서는 매년 1회씩 정기적인 예방접종이 권장되고 있다.

### 4. 돼지콜레라 면역실태의 한 예

돼지콜레라는 질병의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고, 또 감염시 치사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양

돈을 경영하는 농가나 전문양돈장, 일반농가 모두 이 질병에 대한 양호한 방역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지난해 실시한 돼지콜레라 항체 조사를 일예로 들자면, 전문적으로 돼지를 사육하는 양돈장의 경우 돼지콜레라의 항체 양성률은 50%를 상회하였다. 또한 돼지콜레라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농장의 경우는 85% 이상의 항체 양성 비율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양돈장의 경우 돼지콜레라에 의한 폐사나 발생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 반면 소규모 양돈농가에서 출하되는 돼지의 혈청을 도축장에서 채취하여 검사하였던바, 돼지콜레라에 대한 항체양성 비율은 5% 수준 미만으로 집계되었다. 이와같은 자료를 파악하건데 추후의 돼지콜레라에 대한 적절한 방역이나 질병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서는 소규모 양돈농가에 있어서 이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의 중

요성이 재 인식되어야 하겠으며, 또 적극적인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맺음말

돼지콜레라는 현재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양돈산업에 있어서도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큰 질병으로서 이 질병에 대한 주의깊은 염려가 요구되는 질병이다. 그러나 1970년대 가축위생연구소에서 돼지콜레라 예방백신이 개발된 이후 매년 그 발생 및 피해 상황이 감소되었다는 점은 누차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단 돼지콜레라 뿐만 아니라 여타 질병 모두 적절한 예방접종을 통한 사전 방역만이 질병에 의한 피해 및 생산성의 저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드리며, 더운 계절 다발할 수 있는 전염성 질병에 대한 유비무환의 양돈을 이룩하시길 기원드리며 이 지면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

## 전기안전 캠페인

## 절연이 불량한 가옥내 배선은 곧 수리합시다

가옥내의 배선이나 전기기기의 절연(전기가 외부로 흐르는 것을 막음)저항치는 100V 회로에서는 0.1MΩ, 380/220V 회로에서는 0.2MΩ, 440V에서는 0.4MΩ 이상으로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저항치는 누전에 의한 감전이나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최저값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점검원은 2년에 1회씩 일반가정을 방문하여 전기설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알려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절대 감전이나 화재와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습니다. 따라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절연불량(누전 등)으로 통지하면 곧 수리하시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전기재해로부터 보호합시다.

